

제 1 교시

국 어

수험번호 ()

성 명 ()

※ 다음 물음에 대한 가장 옳은 답을 하나만 골라 정확히 표기하시오.

1. 다음 상황에서 ㉠에 어울리는 사과의 말은?



친구의 작품을 실수로 깎을 때

- 1. "생일 축하해!"
2. "칭찬해 줘서 고마워."
3. "누가 거기 서 있으래?"
4. "내가 실수로 그랬어. 미안해."

2. 토의할 때 지켜야 할 태도로 바르지 않은 것은?

- 1.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
2. 토의 주제에 알맞은 말을 한다.
3. 내 의견만 옳다고 무조건 고집한다.
4. 신뢰성 있는 근거 자료를 활용한다.

3. ㉠에 들어갈 속담으로 알맞은 것은?

우리 속담에 "(㉠)"라는 말이 있다. 쉬운 일이라도 협력하면 훨씬 쉽다는 뜻이다.

- 1.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2.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
3.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4.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4. 밑줄 친 낱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과수원에서 배를 직접 따 먹었다.

- 1. 배 한 척이 바다에 떠 있다.
2. 엄마 키는 내 키의 두 배이다.
3. 동생이 배가 아파 병원에 갔다.
4. 어제 먹은 배가 참 달고 맛있었다.

5. ㉠에 해당하지 않는 낱말은?

㉠ 외래어는 다른 나라의 말이 들어와서 우리말처럼 쓰이는 낱말이다.

- 1. 버스 2. 카드 3. 커피 4. 하늘

6. 다음 광고에서 전하려는 내용은?



- 1. 책을 많이 읽자.
2. 손을 깨끗이 씻자.
3. 용돈을 아껴 쓰자.
4. 교통 규칙을 지키자.

7.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주장: 자연을 보호하자.
근거: o 자연은 한 번 파괴되면 복원하기가 어렵다.
o (㉠)

- 1. 훼손된 자연은 되살리기 쉽다.
2. 무리한 자연 개발은 생태계를 보호한다.
3. 자연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삶의 터전이다.
4. 자연이 파괴되면 사람의 생활환경이 더 좋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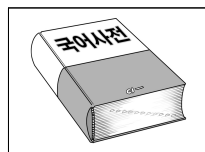
[8~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식초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이어 온 발효 식품으로, 조미료 및 방부제로 사용되고 있다. 식초는 곡물이나 과일에 누룩이라는 곰팡이를 번식시켜 만든다. 곡물과 과일에 있는 효모가 자라 알코올을 ㉠ 만들고, 이 알코올에서 식초 균이 자라면서 식초가 되는 것이다.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

8. 밑줄에 나타난 식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오래전부터 이어 온 발효 식품이다.
2. 조미료 및 방부제로 사용되고 있다.
3. 만드는 데 숙성 기간은 필요 없다.
4. 누룩이라는 곰팡이를 번식시켜 만든다.

9. ㉠의 뜻을 알기 위해 다음의 사전에서 찾아야 할 낱말은?



- 1. 만들고 2. 만들다
3. 만들면 4. 만들어

10. 컴퓨터로 온라인 글쓰기를 할 때 지켜야 할 예절로 바른 것은?

- 1. 상대방을 존중하며 글을 쓴다.
2. 정확하지 않은 내용도 무조건 쓴다.
3.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비난하는 글을 쓴다.
4. 인터넷의 글을 허락 없이 내 것처럼 그대로 쓴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날, 알라딘이 친구들과 시장에서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알라딘에게 한 낯선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알라딘을 덤석 끌어안으며 말하였습니다.

“네가 알라딘이지? 나는 네 삼촌이란다. 못 본 사이에 많이 컸구나.”

알라딘은 자신에게 삼촌이 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삼촌은 알라딘에게 더 멋진 곳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이튿날 다시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11. 윗글의 공간적 배경은?

- ① 시장 ② 학교 ③ 과수원 ④ 동물원

12. 알라딘이 어리둥절해 한 까닭은?

- ① 삼촌이 선물을 주어서
 ② 모르는 아이가 함께 놀자고 해서
 ③ 친구가 알라딘을 덤석 끌어안아서
 ④ 들어 본 적이 없는 삼촌이 나타나서

13. 밑줄 친 낱말의 뜻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의 남극 탐험은 1978년 크릴새우를 시험 삼아 잡으면서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탐험은 1985년에 시작되었다. 이듬해인 1986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서른세 번째로 남극 조약에 가입하였다.

- ① 작년 ② 올해 ③ 다음 해 ④ 몇 년 후

14. 문장의 호응 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거짓됨이 전혀 없다.
 ② 나는 딸기를 별로 좋아한다.
 ③ 오빠는 동생보다 키가 더 크다.
 ④ 그것은 결코 위험한 행동이 아니다.

[15~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오.”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오.” 할 것이요, 또 “그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오.”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 김구, 「나의 소원」 -

15. 윗글에서 글쓴이가 원하는 것은?

- ① 여행을 많이 하는 것
 ②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③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
 ④ 우리나라가 완전히 자주독립하는 것

16. 문장의 종류가 ㉠과 같은 것은?

- ① 영희는 어디 있니?
 ② 외투를 입고 가거라.
 ③ 도서관에 다녀오겠습니다.
 ④ 그래, 꽃이 참 아름답구나!

[17~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오 무렵 탄금대를 돌아보고 열두대로 갔다. 열두대는 바위 절벽으로, 신립 장군이 임진왜란 중에 열두 번이나 오르내렸다는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 이렇게 가파르고 위험한 곳을 위급했던 전쟁 중에 어떻게 오르내렸을까 싶다.

열두대에서 충주 시내로 가는 길에는 사과나무가 많이 심겨 있었다. 충주 시내로 들어서니 시내 도로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17. 윗글에서 글쓴이가 들른 곳의 순서는?

- ① 열두대 → 충주 시내 → 탄금대
 ② 탄금대 → 열두대 → 충주 시내
 ③ 열두대 → 탄금대 → 충주 시내
 ④ 탄금대 → 충주 시내 → 열두대

18. 기행문을 쓰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행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도 함께 쓴다.
 ② 여행한 시간이나 장소가 잘 나타나게 쓴다.
 ③ 여행하지 않은 장소는 거짓으로 꾸며 쓴다.
 ④ 여행을 하며 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쓴다.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함께 쓰는 우산

박방희

친구와 나눠 쓴 우산

우산 밖
 반은 비 맞고

우산 속
 반은 안 맞고

비 안 맞은
 반 때문에
 더 따스해진
 반 때문에

비 젖은 반도 따뜻하고
 시린 반도 훈훈하고

19. 윗글을 읽고 떠오르는 장면이 아닌 것은?

- ① 비 오는 모습
 ② 교실에서 시험을 보는 모습
 ③ 비를 맞아 반쯤 젖은 모습
 ④ 친구와 함께 우산을 쓴 모습

20. 위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연극을 하기 위해 쓴 글
 ② 주장하기 위해 근거를 들어 쓴 글
 ③ 운율을 살려 생각이나 느낌을 함축적으로 쓴 글
 ④ 새로운 내용을 알려 주기 위해 자세히 설명하여 쓴 글